

## 교회 소식

- 감리교회 커뮤니티 가든 작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villagecolab.org  
susan.chupungco@nyac-umc.com  
venmo@susanchupungco
- 담임목사 동정
  - 6월 14-16일(월-수)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새벽기도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 6월 28-7월 2일 (월-금) St. Louis, MO 에서 열리는 PCA 총회(General Assembly)에 다녀옵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강승연 집사 (시 9:9-20)
- 친교: TBA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 성경 공부 및 모임

- **성경공부:** TBA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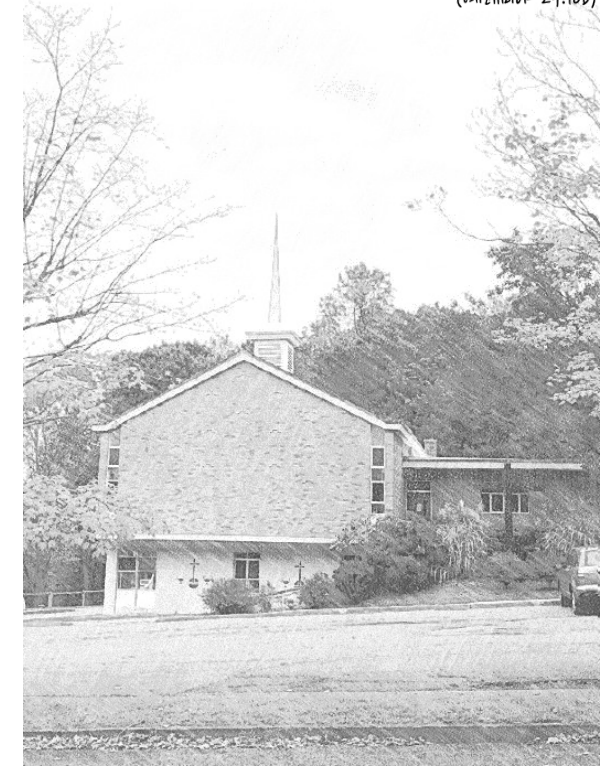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21년 표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렘 29:10B (I WILL FULFILL MY GRACIOUS PROMISE, JER 29:10B)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Hebrews 10:11-14**----- Leader  
 Sermon----- “**The Priest and The Sacrifice**” ---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80(10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Hymn There is no Name so Sweet**  
 대표기도 -----시편 20편 ----- 추원정 집사  
**Prayer Psalm 20**  
 봉헌-----“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ffering**  
 성경봉독 -----**마태복음 22:15-22** ----- 인도자  
**Word of God Mt. 22:15-22**  
 설교-----“누구의 것이냐?” ----- 이민영 목사  
**Sermon Whose Is This Image?**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288(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함께  
**Hymn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쁜 잔치에

마태복음 22:1-14

혼인 잔치는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잔치라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높은 사람 잔치에 자리나 채우려고 억지로 앉아 있다면 기쁨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주간 살펴본 이야기들과 - 포도원 일하기 싫어한 큰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 -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 아버지의 권위를 싫어한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구주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에 이어서, 성령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늘 나라 어린양 혼인 잔치를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가 되게 하십니다. 남의 잔치에 훅서 먹을 것이 있나 어색하게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앉은 사람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날 잔치에 앉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베푸시는 어떤 은혜도 완전히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누리는 것을 받을 돌보고 사역을 키우는 일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로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구원으로의 초청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원래 청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거절하자 이방인이 청함을 받았습니.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녀들이 침노하는 자처럼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소중함과 땅의 것의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불의를 견디지 못해 버리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복은 잔치에 들 자격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합당한 정성입니다. 초청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추레한 옷으로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양 혼인 잔치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신부입니다(계 19:6-7; 21:1-2). 신부가 어떻게 아무 옷이나 입겠습니까? 성령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준비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 자기 의로 가려보려던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초라한 교만의 옷을 벗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읍시다.

보혈로 씻은 옷, 회개와 용서로 눈같이 희게 된 예수의 의로 옷 입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심령들로 지어져 갑시다. 선한 행실의 옷을 입읍시다. 혼인 잔치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억지 희생도, 댓가를 바라는 계산도 아닌 사랑하는 신랑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다.